

도서관인윤리선언 제정의 의의

현 규 섭

〈도서관인윤리선언문안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이제 우리는 전문인으로서의 도덕적 가치체계를 확립하고 행동의 지향점을 명백히 정립할 수 있는 지표를 갖게 되었다. 1997년 10월 30일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35차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인윤리선언’이 채택되고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적인 선포식을 갖게 됨으로 역사상 최초로 우리의 덕목과 행위지표가 창제된 것이다. 주문(主文) 7개조항과 28개 행위지표로 설정된 이 윤리선언은 도서관인의 존재양식을 극명하게 부각한 것이며 시대가 부과하고 있는 임무를 적극 수용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선언문의 기본 개념은 한국의 사회적 현실이, 그리고 도서관이 처하고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시정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 일차적 책무는 우리 도서관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1. 도서관인윤리선언의 기본적 이념

윤리선언은 다음의 세가지 이념을 기본토대로 삼아 발상되었다.

첫째로, 도서관이란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구라는 유네스코의 공공도서관 정신을 명제로 삼는다. 도서관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결부되어 있어, 도서관의 기능제고를 통하지 않고는 국민의 보편적 지식이 지배하는 대중지식사회(a mass knowledge society)가 구현된 바 없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민주정치는 대중지식사회를 본령으로 한다. 영국과 미국의 민주정치의 발전이 도서관의 발전

에 힘입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도서관인은 이 나라에 올바른 민주정치가 배양될 수 있는 토양을 가꾸는 역군이다. 우리는 이 공지를 결코 잃지 않는다. 도서관인이 하는 일은 종국적으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라는 ‘란가나단’ 도서관 5법칙의 마지막 구절을 이념으로 포용한다. 성장이란 인간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도서관인은 성장하는 자아를 통해서만 왜 도서관인이 되었는지를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단 하루도 성장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상으로 포용하고 있는 문화와 역사는 부단히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인은 이 흐름속에 전적으로 용

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세대를 통하여 또한 후대에 대하여 현실을 전승하며 환류(피드 백) 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이며 냉엄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다시금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전문직의 사회적 지위는 전문지식의 심화를 통하여 또한 집단적 단결력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임을 인식한다. 전문집단은 그들이 영위하는 지식의 형상(形象)수준에 의하여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 집단의 보위력(保衛力)과 결속력에도 의존한다. 스스로 자신의 집단에 대한 강렬한 집착없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전문직은 없다. 도서관인의 자율성은 전문지식의 독자적 확장에서 뿐만 아니라 집단적 결속력의 강화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결속력의 구심점으로 우리 스스로 결성한 조직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우리는 전문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지위가 확고하게 정립되기까지 정진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상의 세가지 기본이념은 그것의 구체적 행위지표를 열어나가는 수단적 요소를 통해 구체화된다.

2. 이념구현의 촉매적 요소

앞서 밝힌 민주주의의 수호, 자아성장, 자율성이란 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하는 촉매적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가 정의되었다.

1) 도서관간, 더 나아가서는 도서관인간의 협동력은 급변하는 이 사회에 있어서 우리들이 존속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라는 것을 심층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독립되어 있는 도서관이란 이제는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사회적으로 정보는 양산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오로지 협력을 통하여 우리는 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도서관인은 협력을 통해서만 보편적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기존의 소극적 태도를 벗어버려야 한다.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는 상호 협력을 위한 희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회의 다른 기관과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

2) 도서관 봉사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자세는 부여된 직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를 초월한 보편적 정신의 표현이어야 한다. 국민 각 개인의 인격 확장과 지식함양을 위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이를 돕는 일에 매진함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수준은 도서관봉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민들에 대한 봉사에 헌신해야 한다. 그것은 지식격차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봉사가 기본적으로 대중지식사회 구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일진대 도서관인의 태도는 언제나 당당하며 밝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가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조성하는 일일진대 어떻게 교만하거나 비굴할 수 있겠는가. 이제 사회가 도서관인의 손길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봉사

가 확산되어야 한다.

3) 도서관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도서관인에게 있다. 예산 낭비, 자료구성의 미진성, 보존불량으로 인한 후대에 넘길 자료의 손상, 정리조직에 있어서의 불완전 등 도서관의 경영 미숙으로 인한 책임은 결국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책임인 것이다. 도서관인은 이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침해 받았을 경우 당연히 방어되어야 하며, 때로는 대항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도서관인의 태도는 부여된 책임론에 입각하여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도서관 이용자의 기록은 개인의 비밀보장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의하여 공개되어서는 않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용의 자유를 위하여서도 견지되어야 한다.

4) 도서관인은 공익적 비영리기관 종사자로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부터 인격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생활을 영위하는 선비의 정신과 같은 것이다. 도서관이 문화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에서 사회개선의 원천이라면 여기에 몸담은 사람은 당연히 이에 감당할 만한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정직하며 청결한 성품을 함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이라 긍지를 견지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외롭고 험한 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길을 택한 것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상이 윤리선언이 기초하고 있는 이념을 구체화하는 촉매적 요소이다. 이들 요소는 윤리선언의 3개 기본 이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촉매작용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 | | |
|-------|--------------------------|--|
| 3대 이념 | 1. 민주주의의 수호 | 1. 협동력 2. 봉사 정신 3. 최종책임자의 권리 4. 공익기관인의 품격 |
| | 2. 자아성장 3. 전문가로서의 자율성 | |
| | 촉매적 요소 | |

이로써 이번에 제정된 윤리항목이 저변에는 3대 이념을, 그 표상에는 4가지의 구체화를 위한 수단이며 촉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까지도 실무에서 봉착하는 사실행위를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각각의 주문에 따라서 세부 실천강목을 설정하고 있다.

3. 실천강목의 제시

이제까지 보았던 3개의 이념과 4개의 촉매 요소가 윤리선언의 대항목을 구성하여 이른바 7대 주문을 이루고 있다. 이 주문에는 각각 4개항, 총 28개항의 실천강목이 제시되고 있다. 각각의 실천강목은 도서관인이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한 가치체계를 정돈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실 이들 강목은 전부 기억하기엔 버거운 만큼 다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기본이념과 촉매적 요소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 구 분 | 주 문 | 실천 강목의 용어 |
|--------|---------------|---|
| 3대 이념 | 1. 민주주의의 수호 | ○ 헌법의 알 권리 실현 ○ 국민의 자아각성 촉진 ○ 정보평등권 확보 ○ 문화적 선도자 |
| | 2. 자아성장 | ○ 계속적 연구 ○ 역사적 사실 통보 ○ 난관극복의 의연성 ○ 이용자요구에의 대응력 |
| | 3. 전문가로서의 자율성 | ○ 전문지식 습득 ○ 이의 제기권 확립 ○ 자율성 확립 ○ 전문단체 참여 |
| 축매적 지표 | 1. 협동력 | ○ 협동능력배양 ○ 사회기관과 협력 ○ 협력체제구축 ○ 자관불이익 초월 |
| | 2. 봉사 정신 | ○ 범계층적 봉사 ○ 명량한 태도 견지 ○ 차별철폐 ○ 사회적 인정 획득 |
| | 3. 최종책임자의 권리 | ○ 사회적 기억 보존책임 ○ 표준화지향 ○ 자료선택의 자유 ○ 이용자 보호 |
| | 4. 공익기관인의 품격 | ○ 전문인으로서의 긍지 ○ 부정한 사적 이익 거부 ○ 정직, 당당함 유지 ○ 지탄행위 배격 |

그 밑에 실천강목을 要語로서 함축시켜 보면 그들이 하나의 기반위에 질서있게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천강목에는 도서관 현장에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행동양식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대응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강조되고 있는 점은 우리도 다른 사회기관 종사자와 같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을 맞는 봉사자의 자세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태도는 대 사회적 위상을 좌우하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된다. 태도에 관한 강목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밀도있게 다루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4. 도서관인의 존재양식으로의 의미

도서관인윤리선언은 ‘도서관인은 누구인가’ 하는 원천적인 물음에 대하여 대답한다. 우리의 존재양식은 윤리선언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도서관인들의 직무의식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며 도서관이 처한 사정도 열악하다. 그러나 이런때일수록 우리의 각오는 강인하며 확고하여야 한다. 윤리선언은 이러한 바탕에서 태어난 것이다.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도서관인의 의지와 각오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아야 한다. 이 흐름은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강인하며 지속적인 정신적 조류를 하나의 방향으로

로 모아 질수 있게 길을 열어 준다. 또한 이 시대와 역사 앞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말해준다. 이것이 한국 도서관이 새로운 비약을 위한 반석을 마련하고자 7개 주문 28개 행동강령에 달하는 광범한 윤리규범을 만들게 된 동기이다.

윤리선언에 담긴 의식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한국의 도서관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도서관 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우리의 윤리덕목이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언제나 새로운 도약과 중단 없는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염원이 우리가 세심한 정성으로 윤리

선언문을 만들고 수차례의 걸친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수정작업 끝에 전 도서관인이 모인 자리에서 선포식을 갖게한 이유이기도 한다. 이제 '도서관인윤리선언'은 한국도서관계의 성숙을 이끌어 낼 자양분을 담고 있는 토양으로 또한 도서관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한다. 도서관인은 누구나 이 윤리선언을 통해 새로운 도서관문화를 열어나갈 열의와 구체적 행동양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도서관인윤리선언' 제정·선포로 새롭게 열릴 새 세상을 향한 여정에 열렬히 참가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 알 림 □

회비와 출판물 대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會員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會員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會費와 출판물 대금은 협회의 운영의 기본재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으로 아오나, 협회의 재정사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간 미납하신 會費와 출판물대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